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 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수요설교**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

(눅 17:5-6)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능력과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분명히 던지고 그 답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이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첫 째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두 번째는 성경의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능이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 하나님은 왜 우리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더 부요해 지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드려서 그분이 더 똑똑해 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모든 좋은 것에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믿으며, 그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3.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런 놀라운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평안과 담대함과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옵니다. 능력은 있으나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믿어지는데 나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그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평안과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믿음으로 견고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Increase Our Faith

(Luke 17:5-6)

If we have faith, we can live a victorious life with miracles. We should ask three questions regarding faith and get clear answers. If you do this, you can keep your faith and you can have a healthy life.

1. What do we believe?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belief in the Bible means that we believe God. In regard to God in the Bible, first, we believe his almighty God, the Father, secondly, we believe that God in the Bible is God of eternal love. It is not impossible for God to have too laborious task. There is nothing impossible for God. Our God never makes a mistake, and he is complete, and sincere.

2. Why is God joyful for our faith?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Heb 11:6).

Only our faith towards him can make us please God. It is God who doesn't lack anything. By making our biggest offerings, he is not rich. By receiving wisdom we become smarter.

Our God is complete and sound from eternity to eternity, and rich in good things. By believing God, it is only for us to believe him, recognize him, rely on him and please 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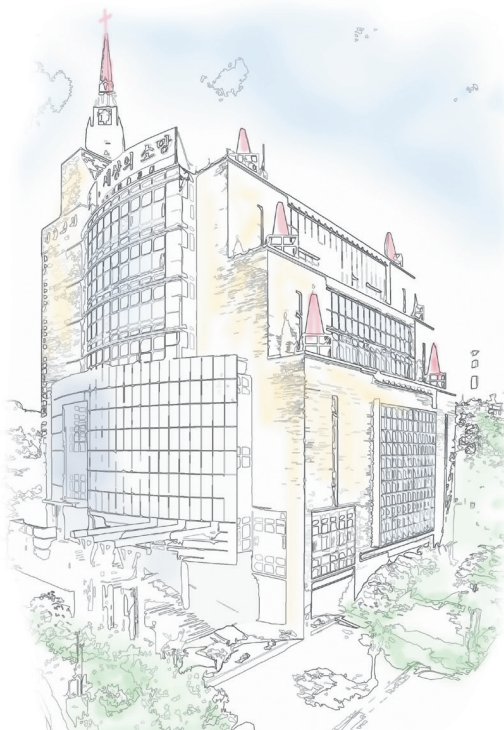
3. What is faith's wonderful power?

The traits of those who have faith enjoy peace, magnanimity, and rest. Though I believe in Almighty God, if God does not love me, fears and anxieties descend on me. Even though God is powerful, it is because I feel that he does not help me. Though we believe his eternal love, it is because he loves us but sometimes we feel that problems are out of his power.

Therefore, at the time of finishing Jesus' public life, Christ's twelve disciples asked, “Increase our faith, which is more precious than gold, and which is like our life.” The distinguishing feature of saints in the Bible who truly believe God is peace and magnanimity.

My beloved Christians,

“Do not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Phil. 4:6-7).



2016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입상자

2016년도 성경암송대회가 10월 16일(금) 저녁 7시에 열렸다. 올해 암송대회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8장, 요한일서 4장이었으며 세 장 중에서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암송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 1국(개인)

대 상 : 서예준(유치), 노진철(유년), 김승수(초등)

믿음상 : 이윤하·이은하(유아), 한예승(유치), 심설아(초등)

소망상 : 장유선(초등)

교육 1국(단체)

소망상 : 유년1팀 - 노윤, 송하영, 장유정, 최시원, 한예준

사랑상 : 유년2팀 - 김은송, 심주하, 이주엽
초등1팀 - 박주원, 송하은, 장해윤, 정은지

교육 2-4국(개인)

대 상 : 김진달

믿음상 : 장정화, 김미성1

소망상 : 황선영

사랑상 : 박유진, 직분자양성부(강윤숙, 고윤상, 김미성, 김용환, 최예순)

장려상 : 진하민, 장상국, 고등부 2-4반(권소희, 공신혁, 문예림, 송윤희, 신서호, 최유리)

영어암송

대 상 : 장하늘(중등)

믿음상 : 김동혁(초등)

소망상 : 이서주(중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단침투가 심각하다. 성도 모두 깨어 기도하고 주변을 경계 해야한다. (사진 : 지난 9월 28일 오전 수요일예배 후 침투한 구원파 이단)

이종운 원로목사의

제자의 길

자기 자신을 넘어서 생각하라 II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에 대한 그리스도인 교리가 인간론이다. 인본주의는 세속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다. 세속주의는 우주로부터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짚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모든 것의 잣대(Man, the measure of all things)"라고 말했다. 인간이 규범이므로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해 평가된다. 인간이 궁극적인 권위자이고 인간을 신성화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파멸로 이끌 뿐이다.

3. 그리스도인의 타락 교리(The Doctrine of the

fall)

인간이 이토록 존귀한데 왜 세상은 점점 나빠지는가? 대답은 그리스도인의 죄론(Doctrine of sin)에서 찾는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타락한 피조물이다.

시편 8:4-5에서 시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라고 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나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만드셨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간 존재로서 인간을 말한다. 영혼을 가졌으니 천사와 같고 육신을 가졌으니 짐승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짐승으로 전락하거나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서도 안 된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 가운데는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는 사람도, 짐승같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

짐승은 새끼를 죽이기도 한다. 인간도 낙태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짐승은 제 새끼를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죽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매년 수 만 명이 낙태로 죽는다. 성해방론자들은 인간되기를 포

기하고 동물의 세계를 답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따라서 타락 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 아니다.

4. 그리스도인의 구원 교리(The Doctrine of redemption)

그리스도인의 구원 교리는 신론, 계시론, 인론, 타락론, 구원론 등 여러 주제들을 생각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고 했다. 구원을 받은 이들은 다른 사람을 돌본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 애쓴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 초월자와 역사 너머를 그리고 이웃을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이여 자신을 넘어서 생각하라!
(다음 주 계속)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및 효력에 대한 질의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

수신 : 대한예수장로회총회장
참조 : 헌법위원장
경유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장

1.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

서울교회 정관 제 15조(개정 및 효력발생)상, 본 정관은 당회의의결을 거쳐 개정하고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료(증거1)에 의하면 1992.2.1(토)제정된 것으로 확인됨

당회는 통과되었는지 몰라도, 공동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서울교회 정관이 총회헌법에 비추어 효력이 있는지?

2.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등

위 규정 제2조(기간), 제3조(신임투표와 재시무)상, 담임목사가 6년 시무 후 1년의 안식년을 마친 다음, 당회 3분의 2 찬성에 의한 신임투표를 거쳐 재시무한다 라고 하는데,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증거2)은 제정근거인 정관의 위임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동규정은 총회헌법에 비추어 효력이 있는지?

3. 교단헌법과 서울교회 정관 및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의 상치문제

예장통합 교단헌법 제2편(정치) 제4장 제22조는 목사와 시무형함을 70세로 규정 헌법시행 규정 제1편(정치) 제26조(직원선택) 제7항은 헌

법 권징 제4조 제 1항, 제6조 제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하여 항존직의 경우 재신임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상치되는 서울교회 정관,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 발생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증거1, 서울교회 정관 및 규정집, 제9장 부칙
2. 증거2,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제2조(기간), 제3조(신임투표와 재시무)

2016.7.18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담임목사 박노철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서 강남 : 제 58-197호
시행일자 : 2016.9.21
수신 : 서울교회 당회장

제목 :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서울교회에서 본 서울강남노회에 2016.7.18.이로 접수된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서우륙회 정관 제 15조(개정 및 효력 발생)상, 본 정관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고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하며 서울교회 정관이 공동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인데 과연 총회 헌법에 비추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3 이에 대한 답변은 교회의 모든 결의사항은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집행은 제직회가 하는 것이며, 당회는 지도자적 기관이나 최고의결 기

관은 아닙니다. 보통 당회는 개정 수정안을 다루고, 교회의 최고 의결인 공동의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관을 제정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로 정관의 적용대상인 공동의회 회원들이 인정한 바 없는 정관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에 의하면 서울교회 규정 제2조(기간)제3조(신임투표와 재 시무)상, 담임목사가 6년 시무 후 1년의 안식년을 마친 다음 당회 3분의 2 찬성에 의한 신임 투표를 거쳐 재 시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1편(정치) 제26조(직원선택) 제7항에는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하여 항존직의 경우 재신임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 구성원 모두가 총회 헌법에 명시된 규정과 의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야 하나 그들에게 허락된 권리는 포기할 수 있는바 안식년제 규정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교단 헌법과 서울교회 정관 및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의 상치문제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총회 헌법 해석 사례집 제94회기 헌법 해석 사례집 30항에 시흥교회 방수성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2010. 3. 18)'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 해석에 의하면 항존직 재신임 투표 불가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시행규정 제2자(정치)제 26조(직원선택)4항에 의거 항존직 재신임 투표를 할 수 없으며, 상위법규인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한 내규와 그로 인한 모든 회의와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위임 목사 신분과 권한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교회 정관은 우리 교단 헌법과 위배되는바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경유지인 서울강남노회 임원회의 답변이며, 최종 답변은 총회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총회의 최종 답변도 순례자를 통해 공개 하도록 하겠다.



호산나학교가 지켜져야 할 이유

안녕하십니까?

호산나대학에 재학중인 양현준학생이 거주하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자신보육원 원장 김정도입니다.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준이가 호산나대학에 입학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의견이 많았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과연 그 많은 학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부모님이 안계시고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과연 가능한지에 대하여 시설차원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호산나대학의 관계자분들과 특히, 이동귀부 학장님과의 상담을 통해 현준이에게 꿈을 꿀 수



양현준 학생

는 기회를 제공하자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 현준이는 많이 밝아지고,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한 가족체육대회에 시설담당교사와 참가하며, 사랑이 가득한 학교라는 확신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2학기 등록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서울교회의 장학금과, 살림권

사회에서 3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현준이의 학교 생활을 응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준이를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현준이

의 영원한 아버지되심에 의지가 되고 평안해집니다. 현준이는 호산나대학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향상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현준이가 장애를 극복하고 기능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꿈꾸고 희망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며,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보육원 전직원과 원생들은 서울교회 성도님과 특히 살림권사회에 머리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자신보육원 시설장 김정도

만민에게 전도 -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축복의 통로

-기도제목들-

1. FBDB 현지 단체에서 함께 사역하는 모든 팀원들이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산재 사물로 살게 하옵소서.
2. 이동진료와 의료교육, 훈련 사역을 위해 지혜와 능력,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주소서.
3. 저희 사무실과 저희 집 안전을 지켜 주소서. 저희 집은 현재 전기계량기 문제로 전기가 끊어져서 이선교사가 사무실로 피난가게 되었어요. 속히 계량기가 고쳐져 집으로 옮길 수 있게 하소서. 오지 미션을 가는 동안에는 팀원들이 미션을 가서 저희 집과 의료팀사무실이 완전히 비게 됩니다. 12월부터 21일까지 특별히 주님 지켜 주소서.
4. 아동팀 운전기사 헤리가 생활이 어려워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어요. 저희도 새로운 기사를 찾고 있는데 주님께서 신실하고 충성된 자로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사역을 같이할 동역자를 붙여주소서.
5. 암부히드리트리무 시에서 땅을 주기로 하였는데 시에서 땅 측정 작업이 속히 이루어져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도록. 이 일에 돕는 자를 붙여주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소서. 이 땅에 진단병리검사센터, 간호대학, 전문 치과, 이비인후

과, 비뇨기과, 외과 등의 작은 진료소를 운영하려 하고, 또 컨퍼런스 센터를 만들어 이미 시작된 외과, 세포병리학과, 치과 등의 학회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다른 전문 과들도 학회나 세미나, 워크샵 등을 열어 국제적으로 교수님들을 초빙하여 강의와 실제 실기훈련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큰 정부 병원의 의사들을 특별 훈련 시킬 수 있도록 이들을 50명 정도 수용할 게스트룸도 만들려고 합니다.

10. 마다가스카르 보사부와 협력을 잘 이루어내도록 도와주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훈 선교사와 저를 마다가스카르 보사부 대외협력부 부원으로 공식 직함을 주시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를 마다가스카르를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소서.

- 이재훈, 박재연 선교사



B.M.W.운동

Bus Metro Walking

-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6일(주)-17일(월) 조양교회 신양부흥회를 인도한다. 17일(월) 한국기독교학술원 제50회 학술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22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7개신학회 실행위원회를 소집한다.
 - 주일식당봉사: 루디아 전도회, 도르가 전도회 (10.16) 이삭 선교회 (10.23)
 - 금주의 식사제공: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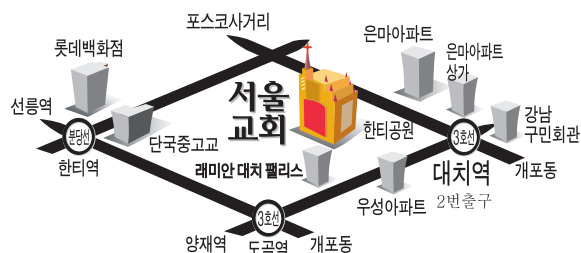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개종, 입교, 세례 받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3.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